

방카슈랑스 확대에 따른 은행의 안전성 및 효율성 변화 분석

나 동 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The Effects of Bancassurance on the Stability and Efficiency of Banks:
A Simulation Study

Dongmin Na

(Research Fellow, Korea Development Institute)

- 핵심주제어: 방카슈랑스(Bancassurance), Z-score, 모수적 접근방법(Parametric Approach), 비용·이익·이익 효율성(Cost · Revenue · Profit Efficiency)
- JEL 코드: G21, G22, G34
- 논문투고일: 2005. 11. 1 심사완료일: 2006. 3. 8

ABSTRACT

This paper conducts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effects of bancassurance on stability and efficiency of the Korean banking industry. The stability and the efficiency are measured using Z-score and composite functional form based on the annual data of 2000 to 2004 for all domestic banks and insurance companies. The stability test indicates that expansion of bancassurance decreases the stability of banks. Furthermore, the efficiency test implies that with the extension of bancassurance, the cost efficiency declines while revenue efficiency rises, which results in an overall increase of profit efficiency.

본 연구는 은행과 보험 간의 겸업이 은행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분석하고 있다. 실증분석은 국내 모든 은행과 보험회사의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5개년 자료를 가지고 Z-score 및 복합함수형태(composite functional form)모형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안전성 분석결과, 은행이 보험업을 경영

할 경우 겸업비중이 확대될수록 안전성은 저하됨을 보여주고 있다. 효율성 분석에서는, 전체 은행의 경우 은행이 보험업무의 겸업비중을 확대함에 따라 비용효율성은 감소하지만, 수익효율성은 증가하며, 결과적으로 이익효율성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I. 서론

1980년대를 통하여 본격화된 금융혁신의 결과 오늘날의 금융산업은 종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근본적으로 변모하였다. 결과적으로 나타난 특징은 금융산업의 각 부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성격의 차이점이 크게 줄어들어 상호 대체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금융산업에서의 전통적인 경계가 무너지거나 모호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나 자회사 방식을 활용한 상호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다양한 금융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업무가 활성화되고 있다.

방카슈랑스는 이러한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출현하고 발전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이다. 방카슈랑스는 은행과 보험회사 간 판매 제휴, 자본 참여 및 자회사 설립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금융서비스 결합을 의미한다. 방카슈랑스는 금융겸업화가 빠르게 진행된 유럽 국가들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일

반화된 금융겸업 형태이며, 미국, 일본 등 전통적으로 분업주의 금융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던 국가들도 금융겸업화의 진전에 따라 최근 들어 방카슈랑스를 허용하고 있다.

방카슈랑스는 방카슈랑스 취급 금융기관에 다양한 기대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한다.¹⁾ 은행은 방카슈랑스를 취급함으로써 규모 및 범위의 경제성 실현이 가능하게 되어 수익원을 다변화하며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험회사는 방카슈랑스로 인하여 신규시장이 창출되고 고객기반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 제고가 이루어진다. 금융산업의 거시적인 측면에서도 방카슈랑스는 금융겸업화를 촉진하고 보험판매와 관련한 서비스 비용을 경감시킴으로써 비용효율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방카슈랑스를 시행하고 있는 주요국의 경험을 살펴보면, 상기한 기대효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은행의 경우 보험업무에서 나타나는 위험을 추가하게 됨으로써 은행의 전체적인 위험이 가중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보험회사의 경우 은행과의 제휴시 은행의 우월적 지위

1) 방카슈랑스의 기대이익과 문제점은 금융이용자 측면과 금융기관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본 논문의 주제가 방카슈랑스와 관련한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효율성의 변화 전망이므로 여기서는 방카슈랑스의 기대이익과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금융기관 측면에만 국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동민(2005)에 포함되어 있다.

로 인하여 수익성의 제고나 경영의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²⁾ 금융산업의 거시적인 측면에서도 방카슈랑스로 인하여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증권, 보험 등 비은행 금융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전체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그러므로 방카슈랑스제도는 은행과 보험회사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제기한다. 이러한 주장은 국가간 금융시스템의 차이,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화될 수 없으며, 상기한 주장의 검증을 위해서는 국가별로 개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상기한 주장을 검증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향후 방카슈랑스의 확대시 국내 은행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방카슈랑스 시행의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방카슈랑스제도를 통한 금융산업의 발전 및 금융이용자의 편익 증대, 동 제도의 안정적인 구축 등 정책의 합목적성의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II장은 연구

의 배경으로서 현재 도입·운영되고 있는 방카슈랑스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논의를 출발하고자 한다. 또한 제기된 논의와 관련된 기존의 논문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본고의 연구방향을 언급하고자 한다. 제III장에서는 분석을 위하여 사용된 데이터와 모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IV장에서는 분석결과와 이를 토대로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제V장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II. 연구의 배경

1. 금융겸업화와 방카슈랑스

금융겸업화의 확장 추세하에서 국제적인 정합성을 제고하고 보험소비자의 편의성을 강화하며, 아울러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보험판매채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카슈랑스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시대적·환경적인 요청에 따라 금융겸업화의 한 형태로서 방카슈랑스 도입에 대한 검토가 1990년대 이후 계속되어 왔으며, 2000년 1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규정』에 의거 금융기관 간 업무제휴의 한 형태로 은행지점

2) 보험회사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상계서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내에서 보험회사 직원에 의한 보험판매 허용이라는 초기단계의 방카슈랑스를 도입하였으며, 2003년 9월에는 보험상품을 은행이 직접 판매대리할 수 있는 본격적인 의미의 방카슈랑스를 시행하였다.³⁾⁴⁾

그러나 우리나라의 방카슈랑스제도는 금융기관과 상품의 허용 범위와 단계, 판매대리점과 고객 간의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규제, 보험회사와 우월적 지위를 가진 판매대리점 간의 불공정한 계약 방지를 위한 규제, 보험회사 간 동등한 기회 제공을 위한 규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등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전면 허용이 아닌 단계적인 허용 형태로 도입되었다. 즉,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판매의 용이성, 불공정 거래 가능성,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방카슈랑스 상품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은행 등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 다양한 보완책이 포함되어 있다(별첨 1 참조).⁵⁾

2. 연구의 배경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변화하고 있는 몇 가지 뚜렷한 현상은 다음과 같다. 먼저 판매채널의 변화이다. 2003년 9월부터 2004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방카슈랑스의 판매실적은 전체 판매실적 대비 약 43.5%에 달하고 있다. 특히, 동 기간중 1단계 방카슈랑스 허용 상품과 동일한 개인저축성보험 대비 비중은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64.9%에 이르고 있어 방카슈랑스를 통한 판매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설계사의 시장점유율도 전년도 같은 기간의 79.5%에서 22.8%로 급속하게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방카슈랑스 중심으로의 판매채널 변화는 은행의 인지도, 접근용이

- 3) 보험상품을 은행에 판매대리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방카슈랑스는 보험산업의 대응능력 부족, 은행 등 금융기관 대리점들의 불공정 보험모집행위 우려 등의 이유로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 및 「부칙」 제2조 등 규제일몰조항에 의하여 2003년 8월까지 금지되어 있음으로써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 4) 방카슈랑스는 은행과 보험회사 간의 업무결합 정도와 규제의 강도 등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초기 단계인 1단계는 보험모집인인 은행 내 창구판매(은행은 장소만 제공)이며, 2단계는 판매제휴(은행이 중개인 혹은 대리점의 형태로 직접 판매), 3단계는 상호지분 참여, 합작 등의 형태로 업무제휴의 확대, 제4단계는 지주회사 혹은 자회사 형태의 금융그룹화이며, 일반적으로 단계를 따라 발전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단계의 방카슈랑스를 포함한 광의의 방카슈랑스를 말하고, 이러한 방카슈랑스의 확대 시 은행의 건전성 및 효율성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 5)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2003년에 도입한 방카슈랑스는 2단계 형태의 방카슈랑스이며, 나머지 형태의 방카슈랑스는 이미 허용되어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방카슈랑스의 발전단계와 역행하는 도입순서는 판매제휴시 발생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의 실적 등 판매채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한 정부의 판단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별첨 1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부의 방카슈랑스 단계별 확대방안도 2단계 판매제휴와 관련된 방안이다.

〈표 1〉 방카슈랑스 판매실적 및 비중

(단위: 억원, %)

		초회보험료	수입보험료
전 체	전 상품(A)	57,630	396,613
	개인저축성(B)	38,570	178,781
방카슈랑스(C)		25,047	28,381
방카슈랑스 비중	전 상품 대비(C/A)	43.5	7.2
	개인저축성 대비(C/B)	64.9	15.9

주: 2003년 9월부터 2004년 5월 말까지의 자료임.

〈표 2〉 설계사의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억원, %)

	2002. 9~2003. 5	2003. 9~2004. 5
총초회보험료(A)	39,847	57,630
개인저축성 초회보험료(B)	13,027	39,128
설계사 초회보험료(C)	19,504	19,807
설계사 개인저축성 초회보험료(D)	10,354	8,916
설계사 초회 / 총초회(C/A)	48.7	34.4
설계사 개인저축성 초회 / 개인저축성 초회(D/B)	79.5	22.8
방카슈랑스 초회 / 총초회	-	43.5

성, 고객관계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은행의 수익원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11개월 동안 총신계약 43만건, 수입보험료 3조 2,000억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함으로써 2003년중 시중은행 전체 수

수료 수입의 2%(연간 환산시 6%)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방카슈랑스 허용상품의 범위가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된다면 동 비중이 최소한 2~3배 이상으로 확대되어 시중은행 전체 수수료 수입 중 10~30%를 차지하는 주요 수입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⁶⁾

6) 보장성보험의 수수료 수준은 저축성보험의 약 2~3배이며, 판매비중 또한 절대적이다. 따라서 향후 방카슈랑스가 진행되면서 가격경쟁으로 인하여 다소 수수료가 인하가 있겠지만 수수료 수입은 급속하게 늘어날 것이다.

〈표 3〉 전체 수수료 수입 대비 보험판매수수료 비중

(단위: 억원, %)

	국 민	신 한	외 환	우 리	조 흥	하 나	한 미	계
보험수수료	244	119	67	244	77	112	38	900
비 중	1.5	4.1	2	4.4	1.1	2.5	1.2	2.1
연 환 산	4.3	11.4	5.8	12.1	3.2	7.1	3.5	6.0

주: 1) 비중은 은행의 전체 수입수수료에 대한 비중.
 2) 연환산은 4개월(2003. 9~2003. 12)의 보험판매수수료를 연간 환산한 비중.

〈표 4〉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 변화(방카슈랑스 상품 기준)

(단위: 억원, %)

	2002. 9~2003. 6		2003. 9~2004. 6		증감률 [(B/A)-1]
	보험료(A)	비 중	보험료(B)	비 중	
대형사	9,788	68.6	21,189	50.8	△17.8
중소형사	1,863	13.1	5,053	12.1	△0.9
외국계	1,466	10.3	6,520	15.6	5.4
은행계	1,152	8.1	8,931	21.4	13.3
소 계	14,268	100.0	41,693	100.0	-

주: 보험료는 초회보험료 기준임.

한편 방카슈랑스의 도입은 보험산업의 시장구조를 변모시키고 있다.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대형 보험회사와 중소형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줄어들고, 외국계 및 은행계 보험회사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방카슈랑스의 특성상 판매를 대리하는 금융기관의 인지도와 신뢰도가 가장 중요한바, 우리나라와 같이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가진 나라에서는 은행의 주도로 판매제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보험상품의 질과 가격이 유사한 경우 이러한 현상은 뚜렷하다.

방카슈랑스 도입과 관련한 논의는 수익과 위험 측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수익과 위험 측면에서의 방카슈랑스 도입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방카슈랑스는 이종업종간의 전략적인 제휴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화의 장점인 범위 및 규

모의 경제성을 얻을 수 있다. 규모가 커지고 업무의 범위가 확대되면 능력과 자질에 적합하도록 인력의 배치가 용이해지고 투입요소를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정보수집, 마케팅 등에서 중복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지점망 등 생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생산비용을 줄일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방카슈랑스 사업자의 판매와 관련된 경비가 전통적인 보험회사의 판매시와 비교할 때 1/3 정도로 낮아졌다.

방카슈랑스의 주요 목적의 하나는 고비용판매구조의 보험회사가 은행 등의 저비용판매구조를 이용함으로써 보험판매와 관련한 서비스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 금융업종 간 제휴를 통하여 이루어진 절감된 비용은 고객에게 서비스나 상품의 가격을 낮추어주는 혜택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방카슈랑스는 금융산업의 비용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성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방카슈랑스를 취급하는 겸업 금융기관은 상호 대체성과 보완성이 강한 업무를 함께 취급함으로써 금융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영업수지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금융업무를 종합적으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이 용이하여 규모의 경제를 손쉽게 향유할 수 있으며, 규모가 커지면

국내외적으로 신인도를 확보하기 용이할 뿐만 아니라 금융제도의 안전성 유지를 위한 정부의 보호막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한 수익과 위험 측면에서의 기대효과와는 달리 방카슈랑스 도입은 효율성과 위험 측면에서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즉, 방카슈랑스는 범위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도 범위의 비경제성을 내포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첫째, 방카슈랑스를 통하여 방대한 복합조직이 되는 경우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관료주의적인 경직성이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조직은 창조적인 적극성이나 시장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신속성을 가지기 어렵다. 둘째, 성격이 이질적인 금융서비스를 한 조직 내에서 취급함으로써 영업부문 간의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단순상품과 소극적인 영업의 특성을 가진 은행업무와 복합상품과 적극적인 영업 특성을 가진 보험업무 간에는 겸영시 갈등이 현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방카슈랑스로 인하여 겸업 금융기관에 경제력이 과다하게 집중될 경우 경쟁이 저하되고 비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 시장참여자에게 경제력이 집중되는 경우 동 참여자는 시장 내 다른 참여자보다 정보, 협상력 등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가질 것이다. 예를 들면, 특정 시장참여자가 다른 시장참여자에 비

하여 훨씬 많은 시장정보를 가지게 될 경우 시장 내에서 참여자 간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정보의 비효율성(informational inefficiency)이 커지게 될 것이다. 또한 협상력의 우위로 인한 시장 내의 경쟁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운용의 비효율성(operational inefficiency)도 경제력 집중에 의한 효율성 저하의 한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방카슈랑스 등 겸업화의 진전은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통한 경제력 집중 가능성을 높이고, 이는 시장 내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효율성을 저하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방카슈랑스를 통한 겸업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금융기관의 위험을 증대시켜 금융제도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 첫째, 기업대출, 회사채 및 주식인수업무 등 유사한 위험을 겸업화를 통하여 중첩적으로 다룸으로써 위험이 증대되는 경우이다. 둘째, 기존의 위험과는 다른 새로운 신종 위험을 취급하는 경우이며, 이때 상업은행이 보험업무를 취급하게 되는 것과 같이 새로운 위험의 신종 업무를 취급할 경우 겸업 금융기관의 안전성은 크게 훼손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제기는 방카슈랑스를 통한 겸업화가 취급업무의 다양화로 위험을 분산시킴으로써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주장과 같이 설득력을 가진다.

상기한 바와 같이 방카슈랑스와 관련

하여 효율성과 수익성 및 위험 측면에서 상반된 주장이 존재하며, 각 주장이 나름대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상반된 주장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이 필요하며, 이러한 검증결과는 방카슈랑스제도와 관련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관련 연구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겸업화 추세에 따른 방카슈랑스의 도입으로 국내 금융산업의 구조변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은행과 보험산업의 안전성 및 수익성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방카슈랑스의 확대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방카슈랑스, 즉 은행과 보험산업 간의 겸업화에 대한 연구는 이미 방카슈랑스제도가 도입된 국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동 연구는 주로 은행과 보험산업의 겸업 이후 안전성과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먼저 안전성효과와 관련해서 Santomero and Chung(1992)과 Estrella(2001)는 옵션가격결정(option pricing)이론을 바탕으로 자산수익률의 내재변동성과 도산확률 등을 측정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가 비은행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했을 때의 이점을 분석하였다.⁷⁾ Boyd, Graham, and Hewitt

(1993) 역시 가상적인 합병 기업에 대한 도산확률을 Z-score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생명보험 및 손해 보험산업과 합병할 경우 도산위험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정재욱·이지연(2002)이 모의합병 은행의 자산이익률(ROA)과 안전성(Z-score)의 변화를 조사하였는데, 모의합병 전의 대형은행은 높은 자산이익률과 안전성을 가지고 있어 중소형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산위험이 낮으며, 모의합병 후에는 합병은행의 수익성과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중소형은행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효율성 측면의 연구는 주로 특정 금융 산업 분야의 효율성 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미국 보험산업을 대상으로 결합가설(conglomeration hypothesis)과 전략적 집중가설(strategic focus hypothesis)의 유효성을 확인한 Berger et al.(2000)은 기업의 비용뿐만 아니라 수익과 이익을 함께 고려하여 전문생산에 맞선 공동생산의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했을 때, 두 가설 모두 우위를 차지하는 금융서비스 분야를 갖는다는 사실을 밝혔다. 방카슈랑스 도입에 따른 효율성 변화를 연구한 정세창·이정환(2003)은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여 보

험회사의 측면에서 방카슈랑스 도입 전후의 효율성을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보험의 판매활동에 집중 투자하는 보험회사는 판매제휴 방카슈랑스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장지배력이 낮은 보험회사와 지방집중도가 높은 보험회사는 방카슈랑스를 통해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소형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방카슈랑스에 참여하는 것이 참여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봉주·이순재·정세창(2004)의 연구는 Berger et al.(2000)의 연구를 기초로 겸업 전후 은행과 보험산업의 효율성을 비교한 결과 겸업비율이 낮을수록 은행의 비용효율성 감소 정도가 낮고 보험산업의 비용효율성 증가 정도는 높음을 보여주었다. 이익효율성의 경우에는 겸업비율이 높을수록 두 산업 모두에서 효율성 증가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은행은 비용 상쇄 이상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반면 보험산업은 수익효율성이 감소하지만 높은 비용절감효과로 이익효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Estrella(2001)는 은행과 보험회사 간 다각화의 이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옵션가격결정이론 이외에 building block 모형, 차익거래결정이론(arbitrage pricing theory) 등을 사용하였다.

III. 분석방법

1. 분석모형

본 연구는 은행의 보험업 겸업화인 방카슈랑스의 도입으로 은행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Boyd, Graham, and Hewitt(1993)와 정재욱·이지언(2002)의 연구처럼 도산확률 개념에 착안하여 Z-score를 계산하고 금융겸업비중에 따른 변화를 파악한다. 한편,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비용·수익·이익함수식을 추정한 후 모의겸업 전후의 효율성 변화를 비교 분석한다. 효율성 분석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복합함수 형태(composite functional form) 모형을 이용한다.

가. 안전성 분석

본 논문에서의 안전성 분석은 방카슈랑스를 통하여 은행이 보험업을 겸영할 경우, 겸업 전후 은행의 안전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때 분

석대상 은행의 도산위험(probability of bankruptcy)을 측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해당 은행의 안전성을 분석할 수 있다.

도산(bankruptcy)은 기업이 통상적으로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영업 손실을 낼 경우, 즉 $\pi(\text{영업이익}) < -E(\text{자기자본})$ 일 경우로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A=\text{총자산}$, $r=\text{자산이익률}(\pi/A)$, $k=\text{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E/A)$ 이라고 했을 때, 특정연도 혹은 기간의 도산확률, $P(B)$ 를 식 (1)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begin{aligned}
 P(B) &= P(\pi < -E) \\
 &= P(\pi/A < -E/A) \\
 &= P(r < -k) \\
 &= \int_{-\infty}^{-k} f(r) dr \quad (1)
 \end{aligned}$$

여기에서, $f(r)$ 은 r 의 확률밀도함수이며, r 의 평균은 μ 이고 표준편차가 σ 인 정규분포의 형태를 가진다면, $P(B)$ 는 식 (2)와 같이 표준정규분포의 형태로 표현 가능하다.⁸⁾

$$\begin{aligned}
 P(B) &= P(r < -k) \\
 &= P\left(\frac{r - \mu}{\sigma} < \frac{-k - \mu}{\sigma}\right) \\
 &= P(z < z_k) \\
 &= \int_{-\infty}^{z_k} f(z) dz = F(z_k) \quad (2)
 \end{aligned}$$

8) 정규분포로 가정하는 확률변수 r 의 결합시 결합된 변수가 결합정규분포(joint-normal distribution)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분석모형의 적용을 위하여 모형의 확률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전제하기 때문에, 결합 후의 확률변수도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즉, 정규분포의 가정은 분석모형의 적용을 위하여 설정한 가정이다.

여기에서, $F(z_k)$ 는 누적표준정규밀도 함수이며, $Z = -z_k$ 로 정의하면 Z-score는 식 (3)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이때, Z의 값이 커질수록 도산의 위험은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Z = -z_k = \frac{k + \mu}{\sigma} \tag{3}$$

이때,

$$k = \sum_{i=1}^n (E_i/A_i)/n,$$

$$\mu = \sum_{i=1}^n (\pi_i/A_i)/n,$$

$$\sigma = \sqrt{\sum_{i=1}^n (E_i/A_i - \mu)^2 / (n-1)}$$

실질적으로 겸업 전후 은행의 안전성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지표인 Z-score의 겸업 후의 변화치를 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과 생명보험회사 간의 겸업을 모의실험하여야 한다. 먼저 겸업은행의 총자산 대비 보험산업 참여비중(N)을 0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무작위로 하나의 은행과 생명보험회사를 선택한 후 조정인자(adjustment factor) s를 구한다. 조정인자는 겸업시 생명보험회사에서 이전되는 업무의 비중을 의미하

며 다음 식 (4)와 같이 표시된다.

$$s = \frac{N}{1-N} \cdot \frac{A_b}{A_n} \tag{4}$$

A_b : 선택된 은행의 총자산,

A_n : 선택된 보험회사의 총자산

이때 보험회사의 겸업비율인 조정인자를 해당 보험회사의 시계열 자료(D_n)에 각각 곱한 후, 이를 은행의 시계열 자료(D_b)에 더하여 회계적으로 통합된 겸업은행의 시계열 자료(D_m)를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겸업을 확대($0 \leq N < 1$)시키면서 위의 과정을 반복하며, N값의 변화에 따라 겸업은행의 안전성 변화 정도를 분석한다.

나. 효율성 분석

본 소절에서는 각 은행의 방카슈랑스 도입 전후의 추정 비용·수익·이익의 차이를 비교하여 효율성의 변화를 파악한다.⁹⁾

모수접근방법(parametric approach)을 사용하여 효율성을 측정할 경우 비용·수익·이익 함수식을 만들어 모수를 추

9) 효율성 분석은 자료에 의하여 추정된 비용 프론티어(cost frontier) 또는 생산 프론티어(production frontier)와 비교하여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비효율성(inefficiency)은 개념상의 최적 생산기술에 의하여 결정된 결과보다 실제 비용이나 산출물 자료를 통하여 추정된 비용(혹은 생산 프론티어로부터 현재 개별 금융기관이 생산하고 있는 산출물 수준)이 얼마나 이탈(deviation)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특정 은행을 최상의 은행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비효율성 정도를 분석하는 일반적인 효율성 분석과 달리, 동일 은행을 대상으로 겸업 전후 추정치(비용, 수익, 이익)의 변화 정도를 효율성으로 정의하고 분석하고 있다.

$$\frac{C}{A p_c} = \left(\sum_{t=1}^T \alpha_t D_t + \sum_{i=1}^n \beta_i y_i + \frac{1}{2} \sum_{i=1}^n \sum_{j=1}^n \beta_{ij} y_i y_j + \sum_{i=1}^n \gamma_{ik} y_i w_k \right) \times \exp \left(\delta_k w_k + \frac{1}{2} \delta_k w_k^2 \right) + \epsilon \quad (5)$$

여기에서, C = 비용
 A = 총자산
 p_c = 자본투입가격
 D_t = 연도 더미변수
 y_i = 산출/총자산
 $w_k = \ln(\text{노동투입가격/자본투입가격})$
 $\alpha, \beta, \gamma, \delta$ = 추정모수
 ϵ = 오차항

정하여야 한다.¹⁰⁾ 효율성을 연구한 초기의 연구들은 주로 대수변환함수 형태(translog functional form)의 함수를 추정하였으나 이러한 함수 형태는 특정 변수가 0의 값을 가질 경우 추정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특히, 은행과 보험산업에서는 특정 항목에 대한 생산 활동이 없어서 그 값이 0이 되거나 특정 기간의 이익이 음의 값을 갖는 기업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실증분석을 진행하기에 충분한 표본의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한적인 경우에만 대수변환(translog)을 허용하는 box-cox 함수 형태가 이용되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분리성(homotheticity)에 대해 제약이 없으며 종속변수 중에 0이나 음의 값을 갖는 경우

에도 추정이 가능한 Pulley and Braunstein (1992)이 개발한 복합함수 형태(composite functional form)의 모형을 사용한다. 복합함수형태를 이용한 비용함수식은 식 (5)와 같다.¹¹⁾

앞서 서술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방카슈랑스 도입에 따른 은행의 수익과 이익 효율성 변화에도 관심을 갖는다. 수익(R)과 이익(P)에 대한 함수식도 종속변수의 분자값을 수익과 이익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용함수식과 동일한 투입 및 산출구조를 갖는다. 즉, 수익함수식과 비용함수식의 종속변수는 각각 $R/A p_c, P/A p_c$ 가 된다.

아울러 비용 · 수익 · 이익함수의 종속변수는 총자산과 자본투입가격으로 나누어 표준화(normalization)한다. 먼저 총자산으로 표준화했을 때에는 이분산(heteroskedasticity)을 통제하고, 추정시 나

10) 효율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모수접근방법(parametric approach)과 비모수접근방법(nonparametric approach)으로 대별할 수 있다. 모수접근방법은 다시 가정의 차이에 따라 EFA(econometrics frontier analysis), TFA(thick frontier analysis), DFEA(distribution free estimate analysis)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비모수접근 방법으로는 DEA(data envelopment analysis)를 들 수 있다.
 11) 복합함수식은 Berger et al.(2000)에 의하여 수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봉주 · 이순재 · 정세창(2004)의 연구와 같이 수정된 함수식을 사용한다.

$$E_C(E_R, E_P) = \frac{[\hat{C}(\hat{R}_m, \hat{P}_m) - \hat{C}_m(\hat{R}, \hat{P})]}{\hat{C}(\hat{R}, \hat{P})} \quad (6)$$

$E_C, E_R, E_P =$ 비용 · 수익 · 이익 효율성
 $\hat{C}, \hat{R}, \hat{P} =$ 합병 전 추정 비용 · 수익 · 이익
 $\hat{C}_m, \hat{R}_m, \hat{P}_m =$ 합병 후 추정 비용 · 수익 · 이익

타나는 기업규모의 왜곡(scale biases)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리고 자본투입가격에 의한 표준화는 1차동차성(linear homogeneity) 조건을 충족시킨다. 수익과 이익함수에 대해서는 1차동차성 제약이 필요하지 않지만 모형설정의 차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일반적으로 산출가격은 투입가격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복합함수식에서 도출된 비용 · 수익 · 이익 관련 추정치의 모의겸업 전후의 변화 정도(효율성)는 식 (6)으로 측정할 수 있다. 만일 식 (6)의 값이 0보다 클 경우 은행이 보험산업에 진출할 때 효율성이 증가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0보다 작을 경우 효율성이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¹²⁾

한편, 효율성 분석에서는 기존 논문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안전성 분석에서 사용하였던 겸업은행에서의 보험업무 비중(N)을 다르게 정의하였다. 안전성 분

석에서는 보험업무의 비중이 겸업 후 겸업은행의 총자산에서 보험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고 있지만, 효율성 분석에서는 은행이 겸업하고자 하는 생명보험회사의 업무비중, 즉 조정인자(s)를 N 대신 사용한다. N을 사용할 때와 s를 사용할 때의 분석결과는 별 차이가 없으나, 이봉주 · 이순재 · 정세창(2004) 등 기존의 연구결과와 본 연구결과를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하는 데 용이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s를 사용한다. 따라서 효율성 분석에서는 분석대상 은행에 포함되는 생명보험업무의 비중(s)을 0에서 1까지 늘리면서 겸업의 확대과정에서 나타나는 대상 은행의 효율성 변화 정도를 연구한다.¹³⁾

2. 데이터

기업의 도산확률은 기업이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안정된 자기자본의 규모,

12) E_R, E_P 의 경우는 겸업 후 추정치가 겸업 전에 비하여 높은 경우 효율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E_C 와 달리 분자의 순서를 바꾸어 추정하는 것이 편리하다.
 13) 동 분석에서는 보험업무의 편입비율에 비례하여 보험회사의 비용 · 수익 · 이익 등과 투입 · 산출구조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함으로써 분석과정에서 비현실적인 통계량의 적용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기업이 영업활동에 의해 창출한 이익으로 기업의 영업성과를 보여주는 영업이익, 그리고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가치물인 자산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때 회계자료(accounting data)는 기초자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여 산업간 자산변동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회계자료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시장자료(market data)가 기업의 수익성과는 관련 없는 외생적 요인이나 불규칙 잡음 등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¹⁴⁾ 특히 특정 기업에 대한 자료수집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각 기업의 회계자료를 사용한다.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금융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은행 간 합병에 의한 겸업화 및 대형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국내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비용효율성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방카슈랑스 도입에 따른 은행과 보험회사 간 겸업화의 효율성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은 많지 않다. 게다가 은행과 보험회사는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여타의 산업과는 달리 산출물과 투입물을 뚜렷하게 정의할 수 없으며, 일관된 측정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실제

은행과 보험산업의 효율성 분석에서 산출물과 투입물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상이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은행과 보험회사 산출물의 측정방법은 일반적으로 크게 생산접근방법(production approach), 중개접근방법(intermediation approach), 부가가치접근방법(value-added approach)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¹⁵⁾ 먼저, 생산접근방법은 은행과 보험회사를 서비스의 생산기관으로 보고, 이 경우 은행은 예금을 그리고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산출물로 측정한다.¹⁶⁾ 중개접근방법에서는 은행과 보험회사를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중개하는 기관으로 보고, 은행은 대출과 자산 관련 서비스를 산출물로, 그리고 보험회사는 운용자산 투자액을 산출물로 측정한다. 한편 부가가치접근방법에서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산출물로 정의하는데, 은행의 경우 예금과 대출 모두를 산출물로, 보험회사의 경우 생산 및 중개서비스와 관련한 보험금과 운용자산 투자액을 산출물로 측정한다.

<별첨 2>는 두 산업의 효율성을 분석한 연구 등에서 정의한 산출, 투입을 비교한 것으로 각각의 연구에 따라 산출물에 대한 정의가 상이한 것을 볼 수 있다.

14) Genetay and Molyneux(1998)을 참조.

15) 본 분류와 관련하여 Berger and Humphrey(1991) 및 이봉주·이순재·정세창(2004) 등을 참조.

16) 생산접근방법하에서 보험산업의 산출물로 보험료가 아닌 기대손실의 대리치인 발생보험금을 측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Cummins and Zi(1998), 지홍민(2002) 등을 참조.

은행의 경우 산출물을 대출과 운용자산 투자 등으로 정의하는 중개기능 접근방법과 여기에 예금까지 포함한 부가가치 접근방법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보험회사에 대한 연구는 산출물을 보험료 혹은 보험금 등으로 정의하는 점에서 차이는 있으나 운용자산까지 고려하는 부가가치 접근방법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가가치접근방법을 사용하여 은행과 생명보험회사의 산출물을 정의한다. 이에 따라 은행의 경우 예금을 비롯한 대출금과 유가증권 등의 운용자산투자를 산출물로 정의하였으며, 생명보험회사의 경우에도 은행에 적용한 접근방법과 유사하게 지급보험금과 운용자산을 산출물로 정의하였다. 다만,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은 대출금과 유가증권뿐만 아니라 현·예금 및 신탁, 부동산 등이 포함되었다.

비용·수익·이익함수의 투입물로는 노동과 자본을 고려하되 각 투입물의 단위당 비용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인건비를 총인원으로 나눈 노동요소가격과 물건비를 업무용 고정자산으로 나눈 자본요소가격을 측정하였다. 이때 은행은 각 개별 은행의 손익계산서상의 인건비와 물건비를 이용하였으나, 은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실적에 연동되는 수당성 급여비중이 큰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사업

비지출내역의 비례수당, 급여와 임금, 상여금, 복리후생비, 퇴직금 등을 인건비로 산정한 후 전체 사업비지출에서 인건비를 차감한 금액을 물건비로 측정하였다.

한편, 방카슈랑스 도입에 따른 수익과 이익의 효율성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수익·이익함수를 추정하였는데, 은행은 이자순수익과 비이자순익의 합을 수익으로 산정하고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수치를 이익으로 산정하였다. 보험회사는 수익을 보험순수익과 투자영업순수익의 합으로 산정하고 이익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였다. <표 5>는 본 연구의 효율성 분석에서 사용된 변수들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은행과 생명보험회사의 인수·합병이 거의 마무리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방카슈랑스 도입에 따른 안전성 및 효율성 분석을 진행한다. 분석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지속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특정 은행에 합병·인수된 경우에는 동일한 기업으로 간주하였다.¹⁷⁾ 또한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분석기간 내에 신설된 보험사는 자료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표본에서 제외하였다.¹⁸⁾ 이에 따라 분석대상기업의 수는 은행의 경우 14개사이며, 생명보험회사는 21개사이다.

기존의 선행 연구처럼 은행과 생해보

17) 2000년의 주택, 평화, 서울은행은 각각 인수 은행이었던 국민, 우리, 하나은행으로 가정하였다.

18) 최근에 신설된 카디프, SH&C생명은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표 5> 변수 설명

		변수명	변수 정의	비 고
은행	Y	비용 수익 이익	인건비+물건비 이자순수익+비이자순익 수익-비용	
	X ₁ 산출	예금 운용자산투자(b)	대출금, 유가증권 보유	신탁계정 포함
	X ₂ 투입	노동요소가격 자본요소가격	인건비 / 총인원 물건비 / 업무용 고정자산	용역직원 포함
	기타	총 자산 영업이익 자기자본		
생명 보험 회사	Y	비용 수익 이익	인건비+물건비 보험순수익+투자영업순수익 수익-비용	사업비지출내역에서 산정 보험순수익=수입보험료-보험금 지급 투자영업순수익=투자영업수익- 투자영업비용
	X ₁ 산출	보험금 운용자산투자(n)	지급보험금 운용자산	환급금, 배당금 포함 운용자산=현예금및신탁+유가증 권+대출금+부동산
	X ₂ 투입	노동요소가격 자본요소가격	인건비 / 총인원 물건비 / 업무용 고정자산	등록모집인 포함 업무용고정자산=부동산+보증금
	기타	총 자산 영업이익 자기자본		

협회사의 자료는 각각 『은행경영통계』와 『보험통계연감』에서 조사하였으며, 누락된 자료의 경우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의 통계자료를 참조하였다. 한편,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기 위해 2000년 기준의 소비자물가지수로 조정된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6>은 표본으로 선정된 은행과 생명보험회사의 통계량을 제시한 것이다.

은행의 총자산·자기자본·운용자산투자 등은 생명보험회사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비용·수익·이익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은행의 총자산이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 자산 대비 비용 등이 생명보험회사에 비하여 낮아, 투입규모에 비하여 생산활동은 저조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두 산업에서의 비용·수익·이

〈표 6〉 은행·생명보험회사의 기술통계량(2000~2004)

(단위: 억원)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은행	총자산	14,119.12	2,000,379.79	473,299.24	479,734.11
	자기자본	558.00	94,007.48	19,708.65	21,645.01
	영업이익	-43,049.00	21,195.18	1,776.19	7,352.58
	비용	190.20	18,431.24	4,218.99	4,316.71
	수익	9.00	70,966.87	12,580.32	14,657.34
	이익	-659.00	52,696.60	8,361.33	10,516.01
	예금	10,586.00	1,295,878.96	320,512.19	326,088.53
	운용자산투자(b)	10,942.00	1,544,408.79	364,934.58	376,277.24
	노동요소가격	0.18	0.45	0.30	0.06
	자본요소가격	0.12	0.35	0.20	0.05
생명보험회사	총자산	364.49	792,801.41	72,856.41	157,275.11
	자기자본	-18,697.27	90,656.51	4,215.06	13,989.31
	영업이익	-2,450.64	14,145.02	1,348.81	3,184.89
	비용	39.25	27,091.90	3,989.54	6,206.71
	수익	-3,763.40	97,521.87	10,874.49	20,943.63
	이익	-4,539.52	73,402.14	6,882.45	14,985.08
	보험금	33.81	129,275.25	14,754.46	27,730.74
	운용자산투자(n)	201.94	649,642.88	64,874.04	136,380.24
	노동요소가격	0.12	0.91	0.33	0.19
	자본요소가격	0.10	6.14	1.02	1.42

주: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총자산, 자기자본, 영업이익 외의 모든 변수는 라이나생명과 AIG생명을 제외한 후 계산한 수치임.

익 등 통계량의 표준편차는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냈다. 즉, 분석기간중 은행산업의 상기한 통계량들은 생명보험산업에 비하여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경영의 불확실성이 생명보험산업에 비하여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은행은 분석기간 동안 생명보험산업에 비하여 생산성보다는 안전성에 치중한 경영을 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¹⁹⁾

한편, 노동요소가격의 경우 은행과 생

명보험회사의 평균 수준은 거의 동일하지만 표준편차에서 생명보험회사가 3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생명보험산업 내 회사 간 인건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인건비가 여타의 생명보험회사와 은행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본요소가격의 경우 은행이 평균적으로 생명보험회사보다 낮은 것은 방대한 지점망을 구축하기 위한 대규모의 업무용 고정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은행과 생명보험회사 간의 자본요소가격의 표준편차는 더욱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은행의 경우 규모 및 특성에 관계없이 유사한 점포전략을 수행하나,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규모 및 유형에 따라 다양한 점포전략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²⁰⁾ 즉,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은행과 유사하게 부동산 취득 등을 통한 점포망 확대가 일반적이나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임대 형태의 점포 설치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업무용 고정자산의 규모에서 양자 간 차이를 보이는 것이 자본요소가격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주된 이유라 할 수 있다.

IV. 분석결과 및 시사점

1. 안전성 분석

안전성 분석은 세 가지 형태로 진행되었다. 먼저 국내 전체 은행과 전체 생명보험회사가 겸업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안전성 변화를 비교하였다. 이는 은행업이 보험업을 겸업하는 경우 은행업의 안전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개괄적으로 보여준다.

둘째, 은행을 시중은행군과 지방은행군으로 구분하고 보험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안전성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²¹⁾ 이는 방카슈랑스 자체가 은행 위주의 금융겸업화 전략이고 은행의 특성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을 근거로 은행의 특성에 따라 은행군을 구분한 반면, 생명보험회사는 기업 특성에 상관없이 동일한 유형의 기업으로 간주하여,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보험업 겸업에 따른 안전성 변화

19) 생명보험회사의 통계량의 표준편차가 은행보다 크다는 것은 생명보험회사의 경영 불안정성이 크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생명보험회사들 간의 규모 및 경영성과의 차이가 은행들 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20) 자본요소가격의 경우 라이나생명과 AIG생명이 다른 기업에 비해 예상 밖의 너무 큰 값을 가짐에 따라 효율성 분석에서는 두 기업을 제외하였다.

21) 국민, 우리, 하나, 신한, 조흥, 외환, 시티, 제일은행은 시중은행으로,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은 지방은행으로 구분하였다.

를 파악하였다.²²⁾

셋째, 방카슈랑스 효과의 차이를 기업 유형별로 검토하기 위해서 은행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으로 나누고, 생명보험회사도 대형, 중소형, 외국계, 은행계로 구분하였다.²³⁾ 이 경우 생명보험회사의 상품구조, 영업조직, 자산운용 형태 등이 규모별·형태별로 다르기 때문에 보험회사도 기업 유형별로 구분함으로써 기업은행의 안전성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가. 겸업 이전의 안전성 비교

겸업 이전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살펴 보기 위해 분석기간중 두 산업의 총자산이익률(ROA)과 Z-score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에 나타나 있다. 최근 5년 동안 전체 은행의 평균 총자산이익률은 0.19%로 나타났으며, 전체 생명보험회사의 경우에도 1.40%로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²⁴⁾

생명보험산업의 평균 총자산이익률은 은행계 보험사를 제외하고는 은행산업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은행의 경우 분석기간 동안 카드채 등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등 재무건전성의 확충을 위한 노력으로 수익의 감소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형화를 위하여 합병과정에서 자산의 증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은행산업 내에서는 시중은행이 지방은행에 비해 총자산이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생명보험회사 중에서는 대형 및 외국계 보험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총자산이익률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은행계 생명보험회사의 평균 총자산이익률이 음의 값을 가지는 것은 분석기간 동안 대부분의 회사가 손실을 발생시켰고, 이러한 손실은 자기자본 및 자산의 감소를 가져와 자산 대비 수익률을 더욱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22) 은행의 경우 전국적인 규모의 영업구역을 가진 대형 시중은행과 영업구역이 상대적으로 협소한 소형 지방은행 간에는 상품구조와 대출을 비롯한 자산운용 등에서 차이가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다소 예외에 속하지만 일반적으로 대형 시중은행의 경우 기업고객의 비중이 높아 상품 및 대출부문에서의 관련 비중이 높으며 국제금융 등의 비중도 높다. 반면 소형 지방은행의 경우 지역밀착과 개인고객 위주의 영업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품구조, 대출 등에서 대형 시중은행과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간의 유형별 특성은 보험업 겸업 이후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두 그룹 간 보험업의 겸업 영향을 분리하여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23) 삼성, 대한, 교보생명을 대형으로, 금호, 녹십자, 동부, 동양, 럭키, 흥국, SK생명을 중소형으로 구분하였으며, 뉴욕, 라이나, 메트라이프, 알리안츠, 푸르덴셜, AIG, ING, PCA생명과 신한, 하나, KB생명 등을 각각 외국계와 은행계로 정의하였다.

24) 외환위기 전후인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우리나라 17개 은행과 16개 생명보험회사를 분석한 정재욱·이지언(2002)의 연구에서는 은행과 생명보험회사의 평균 자산수익률이 각각 -0.86%, -4.06% 등으로 나타났다.

〈표 7〉 모의겸업 전 은행과 생명보험회사의 수익성·안전성 비교

(단위: %, 수익성의 경우)

	시중은행	지방은행	대형 보험회사	중소형 보험회사	외국계 보험회사	은행계 보험회사	전체 은행	전체 보험회사
수익성	0.28	0.08	1.78	1.18	3.30	-3.54	0.19	1.40
안전성	8.36	9.83	10.70	1.52	6.99	-1.23	8.99	4.52

한편, 안전성을 비교하기 위해 측정된 Z-score값은 은행산업이 생명보험산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2배 정도 높아 은행산업의 건전성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²⁵⁾ 그러나 생명보험산업의 경우 중소형 보험사와 은행계 보험사를 제외할 경우 대체로 은행산업과 비슷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산업의 경우 수익성의 결과와는 반대로 지방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도산의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기자본 대비 영업이익이 우수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별첨 3 참조). 생명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대형 생명보험회사가 매우 높은 Z-score값을 기록한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수익성 측면과 유사

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별첨 4>를 살펴보면, 중소형 보험사와 은행계 보험사의 경우 분석기간 동안 대규모의 영업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기자본의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현상은 은행계 보험사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안전성 측면에서 생명보험산업은 양극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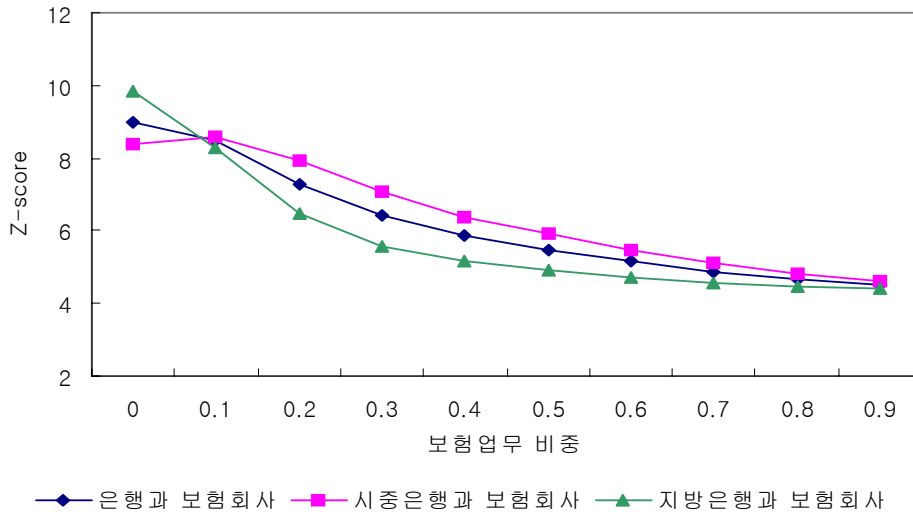
나. 은행산업의 안전성 분석

[그림 1]은 은행이 보험업무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킬 때 도산의 위험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기업의 유형에 따른 구분 없이 전체 은행과 생명보험회사를 모의겸업할

25) Z-score를 해석하는 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Z-score값이 높아 안전성 측면에서 우월한 기업을 합리적인 투자자가 항상 선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의 수익률(return)이 0.01이고 위험(standard deviation)은 0.00001이며, 다른 기업은 각각 2.0과 0.1일 경우 전자가 안전성 측면에서 더 우수하나, 합리적인 투자자는 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후자를 택할 것이다(Genetay and Molyneux[1998], p.172 참조). 따라서 안전성 분석시 Z-score값의 단순 비교보다는 위험과 수익률의 성과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기한 Z-score의 해석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지적해준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한다.

26)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중소형 보험사 및 은행계 보험사와 유사하게 대규모의 영업손실이 분석기간중 발생하였으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충실한 자기자본의 확충이 이루어져 안전성 측면에서 상기한 두 그룹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별첨 4 참조).

[그림 1] 모의겸업 후 은행의 안전성 변화



경우 보험업무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겸업 은행의 안전성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²⁷⁾ 이는 전체 보험산업의 평균적인 안전성이 은행의 안전성보다 낮다는 <표 7>의 통계적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험업의 겸업비중이 확대될수록 겸업은행의 안전성이 저하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은행이 보험업무라는 신종 업무를 다룰 경우, 업무의 다각화로 인한 위험절감 요인보다는 신종 업무를 추가로 취급함으로써 발

생하는 위험이 크고, 이에 따라 은행과 보험 간의 겸업화가 확대될수록 은행의 안전성이 저하됨을 알 수 있었다.

다. 유형별 안전성 분석

1) 은행 유형별 안전성 분석

은행을 특성과 규모에 따라 대형 시중은행과 소형 지방은행으로 구분하여 모의 겸업하면 [그림 1]과 같은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지방은행의 경우 보험업무의 비

27) 본 안전성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Z-score의 값을 정재욱·이지언(2002) 등의 선행 연구결과와 비교했을 때 그 추세는 유사하지만 모든 겸업 수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은행과 보험회사 간의 겸업비율이 증가할수록 도산위험이 증가한다는 분석결과는 동일하나, 전체적으로 볼 때 과거에 비해 도산위험은 평균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감독당국의 건전성 관련 제도의 강화와 금융기관들의 자체적인 건전성 제고노력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건전성 제고노력을 통한 금융기관 내부의 부실정리 결과로 수익성이 강화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들 수 있다. 이러한 금융기관의 체질 강화는 금융겸업화의 확대를 촉진하는 촉매로 작용하고 있다.

중이 증가하면서 도산의 위험성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시중은행은 보험업을 겸업하기 이전에는 지방은행에 비해 다소 낮은 안전성을 가졌으나 겸업 후 보험업무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성은 낮아지나 그 정도는 지방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 전체적으로 겸업 이후에는 시중은행의 안전성이 지방은행에 비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규모가 크고 업무의 다각화가 상대적으로 잘되어 있는 대형 시중은행은 겸업화로 인한 위험분산과 이익의 창출에서 지방은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2) 은행·보험 유형별 안전성 분석

은행과 생명보험회사를 규모 및 특성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안전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2] 및 [그림 3]과 같다. [그림 2]는 시중은행과 다양한 유형별 생명보험회사의 모의겸업결과를, [그림 3]은 지방은행과 생명보험회사의 유형별 모의겸업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상대적으로 자산의 규모가 큰 시중은행이 대형보험회사의 업무를 겸업할 경우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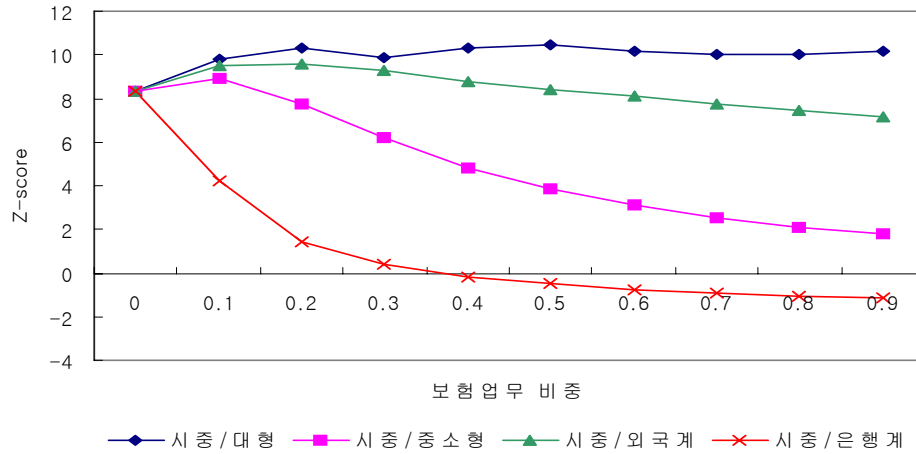
전성은 겸업 이전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시중은행이 외국계 보험회사와 겸업하는 경우에도 보험업 비중이 20%일 때까지 증가하다가 그 후에는 감소하였지만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시중은행이 중소형 및 은행계 생명보험회사 등 다른 두 유형의 보험회사와 겸업을 확대하는 경우 안전성은 크게 저하되었으며, 특히 은행계 생명보험회사와 겸업하는 경우 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²⁸⁾

한편, 규모가 작은 지방은행이 보험업에 진출하면 전반적으로 안전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행과 외국계 보험회사의 겸업은 보험업무비중이 10%일 때까지 안전성이 증가한 후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지방은행과 대형 보험회사의 겸업은 겸업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안전성이 소폭 감소하다가 보험업 겸업의 비중이 50% 이후부터는 지방은행의 안전성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형 및 은행계 보험회사와 겸업시 지방은행의 안전성은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크게 감소하였다.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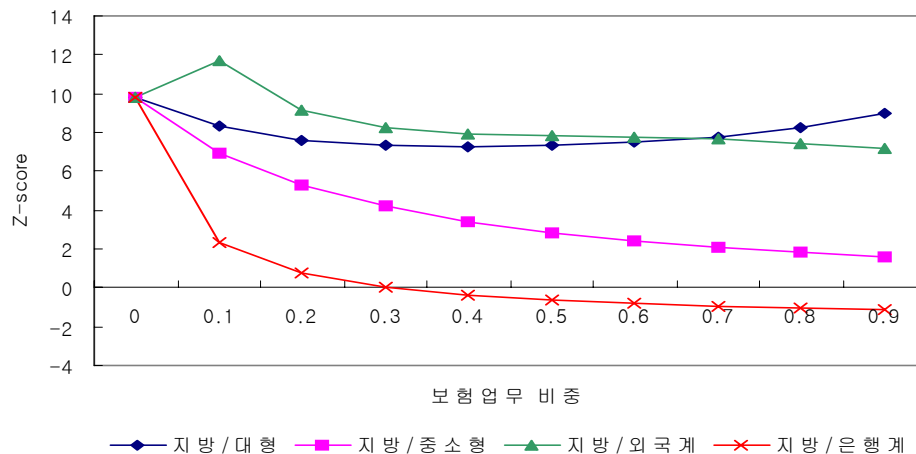
28) 직관적으로는 은행계 보험사가 일반 보험사보다는 은행과의 겸업의 경우 업무 등의 유사경험 등이 존재함에 따라 안전성이 하락할 유인이 작을 수 있으나, 본 실증분석의 결과는 pooling의 특성에 따라 합병전의 두 사업의 안전성 크기가 반영되게 되며 이에 따라 직관과는 다른 분석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즉, 익명의 심사자의 지적처럼, 본 논문이 사용하는 안전성 분석모형은 “pooling의 특성 때문에 second moment인 두 사업의 상관관계가 나타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두 사업 간의 상관관계나 비용배분, 수익증대 등의 시너지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29) 안전성 분석에서의 N 은 전술한 바와 같이 겸업은행의 총자산 대비 겸업된 보험회사의 자산비중이다. 따라서 N 값은 분석대상 은행과 보험사의 자산 및 겸업비율(s)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만일 겸업비율을 고

[그림 2] 모의겸업 후 시중은행의 안전성 변화



[그림 3] 모의겸업 후 지방은행의 안전성 변화



정한다면, 은행이 대형일 경우 상대적으로 N 값의 최고치는 낮을 것이며(예: 시중은행과 은행계 보험사), 그 반대로 보험회사가 대형일 경우 N 값은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예: 대형 보험회사와 지방은행). 즉, 본 안전성 분석에서 N 값은 0부터 1까지로 정해져 있으나, 겸업은행과 피겸업 보험사의 자산규모에 따라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N 의 구간은 다르다. 그러므로 분석결과와 해석이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N 값의 구간을 고려하여 분석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100% 겸업시의 각 유형별 N 값이 <별첨 5>에 표시되어 있고, 이 N 값 이하의 구간이 현실적인 분석구간이라 할 수 있다.

안전성 분석결과는, 은행이 보험업을 겸영할 경우 겸영비중이 확대될수록 안전성이 저하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안전성의 저하는 규모 및 범위의 경제성이 낮은 지방은행의 경우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보험회사의 경우 분석기간 동안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대형 보험사나 외국계 보험사가 은행과 겸업하는 경우 겸업은행의 안전성 저하폭은 중소형 보험회사나 은행계 보험회사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따라서 동 분석결과 은행과 보험 간의 겸업시 대형은행과 대형 및 외국계 보험사의 겸업이 상대적으로 바람직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어떤 형태의 은행과 보험 간의 겸업화라도 은행의 건전성은 낮아지기 때문에 은행 본체에서의 직접적인 겸영은 신중하여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은행은 겸업을 통한 건전성 저하의 폐해를 낮추기 위해서 지주회사 혹은 자회사 형태의 겸업방식을 고려하거나 직접적인 겸영시에도 판매제휴 등 제한된 범위의 방카슈랑스를 추진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³⁰⁾

2. 효율성 분석

가. 은행산업의 효율성 분석

[그림 4]는 국내은행이 방카슈랑스를 통해 금융겸업을 확대할 경우 효율성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겸업 이후 비용효율성은 음의 값을 가지고 수익 및 이익효율성은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겸업 전에 비해 비용효율성은 감소하고 수익 및 이익효율성은 증가함을 알 수 있다.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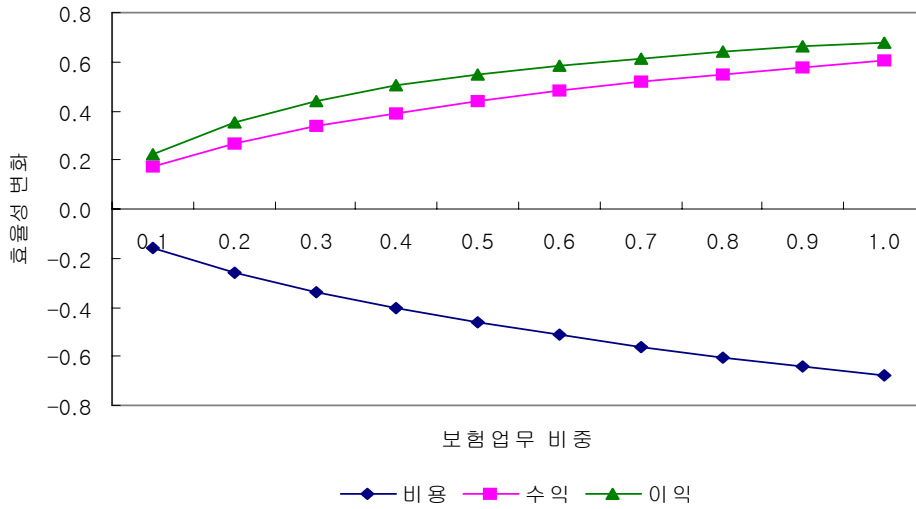
비용효율성의 경우 겸업 전에는 추정비용이 0.054였으나, 겸업이 확대됨에 따라 모든 겸업비율에서 0.054보다 작은 값을 가지고 그 차이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겸업 이후 비용효율성이 떨어지며 겸업이 심화됨에 따라 비용효율성의 감소폭도 확대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수익과 이익효율성의 경우, 겸업 전 추정수익과 추정이익은 0.136과

30) 최근 주요국에서의 은행의 보험업 취급 현황을 살펴보면, 은행은 보험회사와 판매제휴 수준 정도로 제한적으로 방카슈랑스에 참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이미 보험자회사 등의 형태로 기 진출하고 있는 경우에도 매각 등을 통하여 보험업에서 철수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은행의 보험업 진출시 은행 등 저축기관과 다른 신종 위험을 취급하게 됨에 따라 전체적인 위험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 추가 등 기업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이다. 나동민(2005) 참조.

31) 본 분석의 결과를 이봉주·이순재·정세창(2004)의 선행 연구와 비교하면, 그 추세는 비슷하지만 다소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겸업화 비중이 10%일 때 1997~2001년 사이의 이익효율성은 감소하였다가 이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00~2004년의 경우에는 모든 겸업비율에서 이익효율성이 증가하였다. 아울러 두 기간 동안의 수익효율성은 일정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용효율성의 감소폭이 크게 줄면서 이익효율성이 과거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별첨 7 참조).

[그림 4] 모의겸업 후 은행의 효율성 변화



0.082였으나, 겸업이 확대됨에 따라 모든 겸업비율에서 겸업 전의 추정치보다 큰 값을 나타내고 그 차이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겸업이 확대됨에 따라 은행의 수익 및 이익효율성은 증가하며 그 증가폭도 커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림 4]를 통하여 은행이 보험업무의 겸업화를 확대함에 따라 비용효율성은 감소하지만, 수익효율성의 증가가 이를 상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익효율성이 증대됨을 알 수 있다.

결국 은행은 은행의 고유업무에 보험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추가적인 비용의 확대가 초래되나 보험업무를 통하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며, 이는 이익의 확대를 제공한다는 사실에 대해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실증적인 결

과는, 은행이 보험산업에 진입하는 이유가 추가적인 수익과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기존 문헌들의 설명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주요국의 경험을 살펴보면 은행은 보험업의 경영 확대를 통하여 추가적인 이익 확대가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경영의 비중을 늘렸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방카슈랑스의 초기단계를 지나 시장이 확대되는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현상이다. 앞 장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방카슈랑스 초기 은행은 판매제휴 등의 형태로 보험업에 진출하나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대한 지분 투자 혹은 보험회사와의 상호 출자 등 보다 긴밀한 업무제휴를 시도하고, 나아가 자회사 형태로

서 보험회사를 소유하는 것이 유럽 주요국 및 미국의 경험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Credit Agricole, 영국의 Midland bank, Westminster bank, Royal Scottish bank, Barclay bank, 독일의 Deutsch bank, Commerz bank, 이탈리아의 UniCredito bank, 스페인의 Banco Bilbano Vizeaya, 네덜란드의 Rabobank, 미국의 Chase Manhattan Bank 등은 판매제휴, 합작투자 등 낮은 결합 형태의 방카슈랑스에서 자회사 설립이라는 강화된 방카슈랑스 형태로 발전하였다.³²⁾

나. 유형별 효율성 분석

1) 은행 유형별 효율성 분석

앞서 서술한 것처럼 방카슈랑스 도입에 따른 효율성 분석은 은행이 보험업 겸업 이후 비용·수익·이익의 변화 정도를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안전성 분석과 마찬가지로 은행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가 [그림 5]에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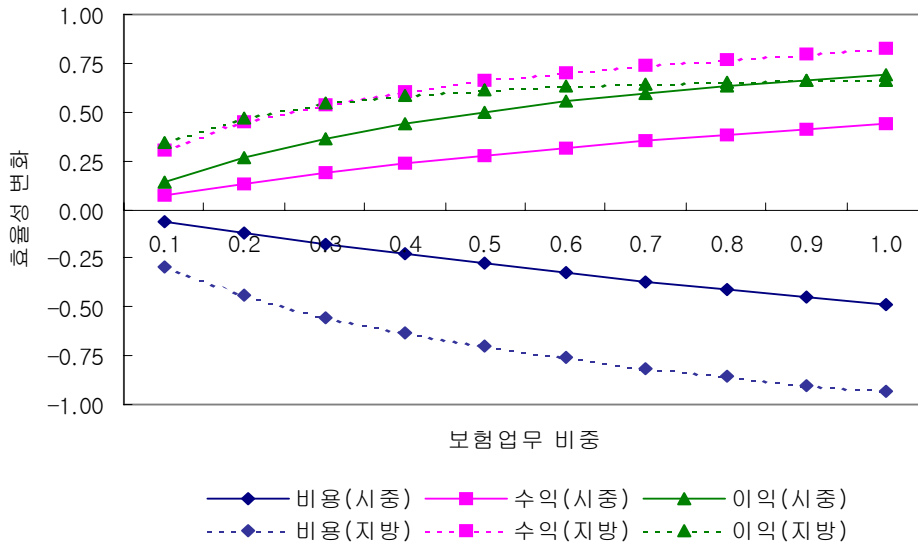
먼저,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의 경우보다 매우 큰 비용 비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은행이 사업다각화를 시도할 경우 전국적인 영업망을 보유한 시중은행에 비해 영

업망 구축을 위하여 많은 비용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전문인력의 고용비용, 교육 관련 비용 등 새 업무의 가동을 위한 비용뿐만 아니라 전산설비 등 하부구조 구축비용이 자산규모가 큰 시중은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지출되기 때문이다. 즉, 신규 업무를 겸업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 중 많은 부분이 상기한 전산설비투자 등의 고정비용이며, 이는 자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지방은행에게는 자산 대비 과도한 비용지출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비용 측면의 비효율성을 확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수익효율성의 경우 겸업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모두 수익효율성이 증가하나, 지방은행의 수익효율성이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보험 겸업을 통하여 자산규모가 작은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에 비하여 자산규모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효율성을 얻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물론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하여 낮은 수익을 얻으나, 자산규모를 고려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효율성을 시현할 수 있다는 것이며, 자산규모가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용효율성 분석결과와 유사하다.

32) 그러나 최근 들어 보험업무에서 발생하는 신종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험업에서 철수하거나, 제한된 범위에서 보험업무를 겸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은행의 방카슈랑스에 대한 시각이 수익성 추구에서 안전성 추구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효율성 비교



겸업화가 진전되면서 모든 겸업 수준에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모두 이익효율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간의 효율성 변화 정도의 차이도 겸업화의 진전에 따라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지방은행이 수익효율성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월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비용 측면의 비효율성 증가로 인하여 이익효율성 증가추세는 상쇄되어, 결과적으로는 보험업무비중이 증가하면서 이익효율성의 수준은 시중은행과 비슷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에 비하여 보험 겸업화가 진행될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의 지출과 이를 기반으로 규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

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수익과 비용을 고려하는 이익효율성의 관점에서는 시중은행과 유사한 성과를 보인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지방은행의 경우 자산규모를 고려하여 시중은행과 유사한 이익 성과를 얻으나, 그 과정에서 수익과 비용의 변동폭이 시중은행에 비하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만일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투입 비용 및 수익의 변동성을 경영위험의 요인으로 해석한다면,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하여 겸업화과정에서의 경영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전술한 안전성 분석의 결과와도 유사하다.³³⁾ 그러므로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이에

따라 자본, 인력 등의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다량의 자원을 투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겸업화 전략에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은행·보험 유형별 효율성 분석

다음의 [그림 6]부터 [그림 8]은 은행을 시중, 지방은행으로 구분한 가운데 생명보험회사를 4개의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보험업 겸업 전후의 비용·수익·이익의 효율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그림 6]에서 비용효율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유형에서 효율성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생명보험회사의 기업 유형과는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지방은행과 합병할 경우 큰 폭의 비용효율성 감소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상기한 바와 같이 지방은행의 경우 겸업과정에서 사업다각화를 위하여 인력 증원, 지점망 확충, 하부구조 구축 등에 자산규모에 비해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이다.

한편, 비용효율성의 변화 정도에 대해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한 결과 시중은행 혹은 지방은행과 대형 생명보험회사가 합병될 경우의 비용감소효과는 다른 유형과 비교했을 때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별첨 8 참조).³⁴⁾

두 번째로 수익효율성을 기업 유형별로 비교하면 대체로 대형 생명보험회사와 합병한 은행들의 효율성 증가가 두드러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⁵⁾ 이는 은행과 겸업을 하는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인지도와 신인도가 다른 유형의 생명보험회사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하여, 은행이 대형 생명보험회사와 겸업하는 경우 보험업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기가 용이하다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은행의 보험업 겸업 동기는 추가적인 수익 추구가 목적인바, 이러한 추가적인 수익은 시장 내에서 인지도와 신인도가 낮은 중소형 보험회사보다는 인지도와 신인도가 높은 대형 보험회사와 겸업할 경우 용이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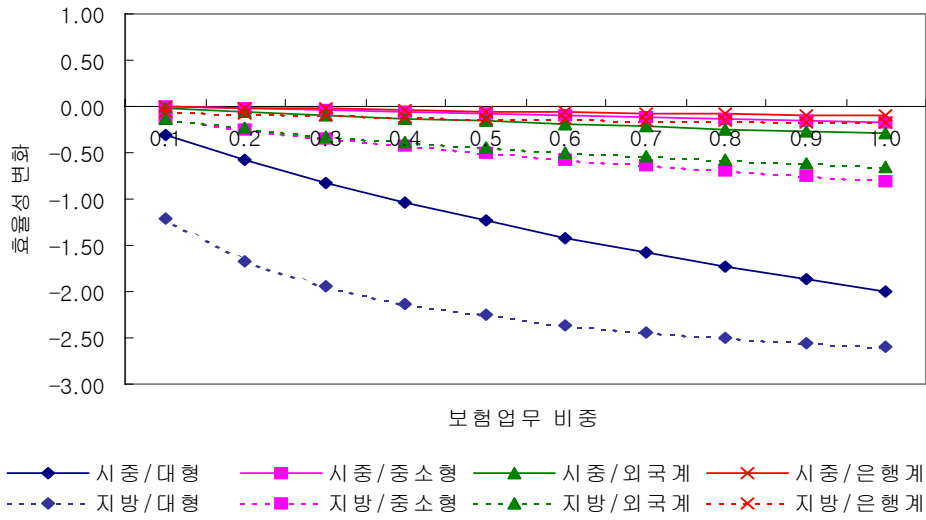
특히, 지방은행이 대형 생명보험회사와 겸업하는 경우 수익효율성의 증가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인지도가 낮은 지방은행이 대형 생명보험

33) 본 논문에서의 안전성 분석은 영업손실이 자기자본을 상회하는 경우인 도산 확률을 기준으로 시행된 반면, 본문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투입비용 및 수익의 변동성을 경영위험의 요인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접근의 차이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에 비하여 겸업시 안전성이 낮아진다는 동일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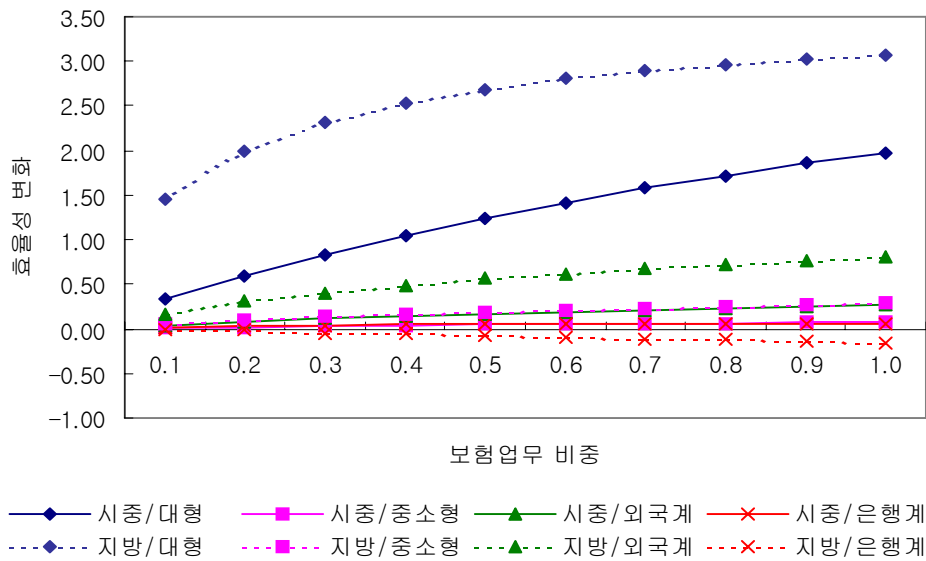
34) 분산분석에 따르면 10%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5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으며, 20~100%에서는 4개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35) 수익효율성과 관련한 분산분석결과 겸업비율이 10~70%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4개의 그룹, 80~100%에서는 5개 그룹으로 나누어진다(별첨 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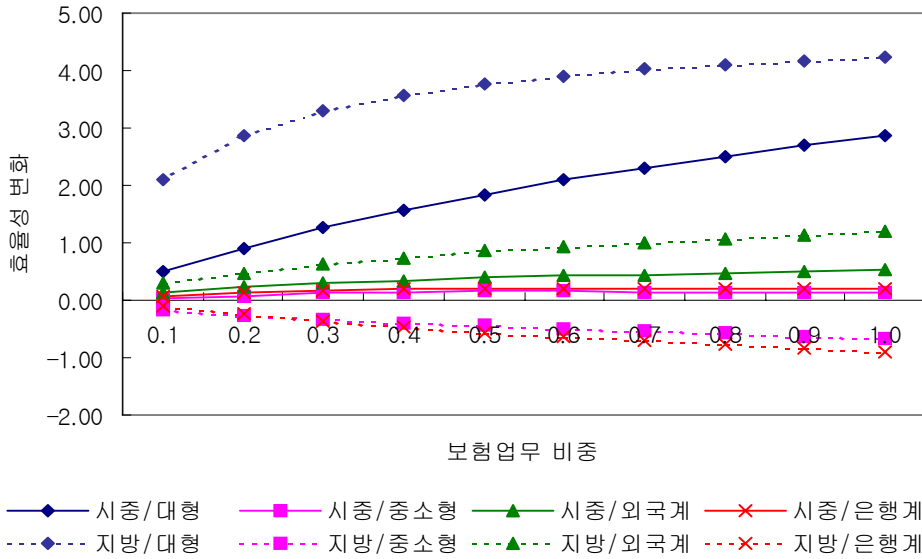
[그림 6] 은행·보험 유형별 비용효율성 비교



[그림 7] 은행·보험 유형별 수익효율성 비교



[그림 8] 은행·보험 유형별 이익효율성 비교



회사와 업무 제휴 등 견업을 할 경우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인지도가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효과는 높은 인지도 및 신인도를 가지고 있는 시중은행의 경우보다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지방은행이 신인도가 높은 외국계 보험회사를 선택했을 때에도 견업비중이 30% 이상일 경우에는 수익효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실증적인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방카슈랑스 도입 초기에 은행 등 금융기관 판매대리점과의 제휴관계가 대형 보험회사와 외국계 보험회사를 중심

으로 형성되었다는 경험적인 사실로서 뒷받침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 유형별 이익효율성의 변화 추세는 수익효율성의 변화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은행이 대형 생명보험회사와 견업을 하는 경우 이익효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지방은행이 대형 생명보험회사와 견업하는 형태일 때 이익효율성이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다.³⁶⁾

그러나 지방은행이 중소형·은행계 생명보험회사와 견업하는 경우에는 이익효율성이 감소하고 있어, 지방은행과 은행

36) 이익효율성과 관련한 분산분석결과 10%와 90~100%의 견업비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3개 그룹으로 나누어지며, 20~80%에서는 4개 그룹으로 나누어진다(별첨 10 참조).

계 혹은 지방은행과 중소형 생명보험회사의 겸업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다.³⁷⁾ 시중은행의 경우에도 중소형 혹은 은행계 보험회사와의 겸업효과는 이익 측면에서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은행과 보험 간의 다양한 결합을 의미하는 방카슈랑스가 은행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방카슈랑스의 기대효과 및 부작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 역시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방카슈랑스가 은행과 보험 간의 결합 정도에 따라 약하게는 은행의 보험상품 판매대행에서부터 강하게는 은행의 보험회사 소유를 통한 직접 겸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 방카슈랑스가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그 결합 정도, 즉 방카슈랑스의 진전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요국 방카슈랑스의 시행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가 간 금융시스템, 금융

정책 방향,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 등의 차이에 따라 방카슈랑스가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여건을 고려한 실증분석은 우리나라의 금융부문의 특성을 반영하여 분석결과와 신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모든 은행과 보험회사의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은행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금융산업구조, 금융기관의 내부경영 효율 등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된 2000년 이후를 분석기간으로 하고 있어 기존의 연구들에 비하여 분석결과를 통한 예측력을 높일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는 안전성과 비용·수익·이익을 포함하는 효율성 분석을 포괄하고 있어 선행 연구보다 분석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재무분석의 핵심 관심사인 위험과 이익(risk and return)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주주, 경영진, 정부 등 이해관계자의 방카슈랑스와 관련한 전략적 혹은 정책적인 결정과정에 참고 자료로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37) 수익효율성 분석에서도 지방은행과 은행계 생명보험회사와의 겸업시 수익효율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겸업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 은행계 보험회사가 시중은행의 자회사 혹은 관계회사인 것을 감안하면 지방은행과 은행계 생명보험회사와의 실질적인 겸업관계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분석모형은 그 특성상 금융산업의 산출물과 투입물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고 일관된 측정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은행의 보험업 겸업비중에 따라 동일한 비율로 통계량이 적용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기초로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이로 인한 단순 가중합(pooling)의 특성 때문에 두 사업주체 간의 결합 후 상호 간의 상관관계로 인한 시너지 효과 등이 분석결과에 포함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모형의 현실적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기한 문제점의 개선이 향후 연구과제로 남아 있다.

본 연구의 안전성 분석결과는 은행이 보험업을 겸영할 경우, 겸업비중이 확대될수록 안전성이 저하됨을 보여준다. 이는 은행이 보험업무라는 신종 업무의 추가 취급시 발생하는 위험이 업무의 다각화로 인한 위험분산효과보다 크고, 그 결과 은행과 보험 간의 겸업화가 확대될수록 은행의 안전성이 저하됨을 시사한다. 이러한 안전성의 저하는 규모 및 범위의 경제성이 낮아 위험분산과 이익창출능력이 시중은행에 비하여 떨어지는 지방은행의 경우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보험회사의 경우 재무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형보험회사나 외국계 보험회사가 은행과 겸업하는 경우 중소형 보험회사나 은행계 보험회사의 경우에 비해 겸업은행의 안전성 저하폭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따

라서 동 분석결과 은행과 보험 간의 겸업시 대형은행과 대형 혹은 외국계 보험사와의 겸업이 상대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안전성 분석결과 어떤 형태의 은행과 보험 간의 겸업화라도 은행의 건전성은 낮아지기 때문에 은행 본체에서의 직접적인 겸영에는 신중하여야 할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즉, 은행은 보험업 겸업시 안전성 저하의 문제를 저감하기 위해서 지주회사 혹은 자회사 형태의 간접적인 겸업방식을 고려하거나 직접적인 겸영시에도 판매제휴 등 제한된 범위의 방카슈랑스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효율성 분석은 비용, 수익, 이익의 세 가지 측면에서 시도되었는데, 전체 은행의 경우 은행이 보험업무의 겸업을 확대함에 따라 비용효율성은 감소하지만, 수익효율성은 증가하며, 결과적으로 이익효율성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이 보험업무를 겸영함으로써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나 보험업무를 통하여 창출된 수익이 이를 상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보험업의 겸업을 통하여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선행 연구결과들과도 유사하며, 은행의 보험업 진출에 대한 근거 및 동기를 설명하고 있다. 은행 유형간 효율성 분석결과는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효율성과 높은 수익효율성을 보여주며, 그

결과 이익효율성은 두 그룹 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은행 유형에 관계없이 이익 측면에서 은행의 보험업 참여는 충분한 동기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동 분석결과는 비용, 수익 등 재무변수의 변동폭이 시중은행에 비하여 지방은행이 크고, 이에 따라 지방은행의 경영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은행 유형별 효율성 분석결과,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하여 겸업시 경영위험이 크고 규모에 비하여 자본, 인력 등의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다량의 자원을 투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겸업화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생명보험회사의 유형도 겸업은행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대형 및 외국계 보험회사와 같이 인지도와 신인도가 높은 보험회사와 겸업하는 경우 은행의 이익효율성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중소형 및 은행계 보험회사와의 겸업시 은행

의 이익효율성은 감소하고 있어, 이들 유형의 보험회사와 은행의 겸업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은행 중심의 금융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방카슈랑스를 통한 은행의 보험업 진출은 더욱 활발하고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단기적인 시각에서 시장지배력 확대 혹은 경영성과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방카슈랑스 전략은 은행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는 금융이용자 보호, 금융산업의 건전성 제고, 금융산업구조의 효율성 강화 등 상위 차원의 금융목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정부 부담으로 귀착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은행은 수익과 비용을 고려한 보험업 경영 전략을 설계하여야 하며, 정부는 금융산업의 건전성 및 효율성 증대와 금융이용자 이익 제고 차원에서 방카슈랑스제도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각호.
- 김선호, 「업무영역 확대가 은행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금융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금융연구원, 1997.
- 나동민, 『금융자율화에 따른 생명보험산업의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95-01, 한국개발연구원, 1995.
- 나동민, 『방카슈랑스의 국내도입 평가와 발전과제』, 정책연구시리즈 2005-17, 한국개발연구원, 2005.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호.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통계』, 각호.
- 이봉주 · 이순재 · 정세창, 「방카슈랑스 도입이 금융겸업화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제33권 제2호, 2004.
- 정세창 · 이정환, 「보험회사에 대한 방카슈랑스 도입 효과 및 시사점 분석」, 『보험개발연구』, 제14권 제1호, 2003.
- 정재욱 · 이지연, 「방카슈랑스가 은행의 안전성 및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금융조사보고서 02-08, 한국금융연구원, 2002.
- 지홍민, 「생명보험산업의 이윤변화 분해」, 『보험개발연구』, 제13권 제3호, 2002.
- Altunbas, Y., P. Molyneux, and J. Thornton, "Big-Bank Mergers in Europe: An Analysis of the Cost Implications," *Economica* 64, 1997, pp.317~329.
- Berger, A.N. and D.B. Humphrey, "The Dominance of Inefficiencies over Scale and Product Mix Economies in Banking,"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28, 1991, pp.117~148.
- Berger, A.N., D. Hancock, and D.B. Humphrey, "Bank Efficiency Derived from the Profit Function,"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17, 1993, pp.317~347.
- Berger, A.N., J.D. Cummins, M.A. Weiss, and H. Zi, "Conglomeration Versus Strategic Focus: Evidence from the Insurance Industry," *Journal of Financial Intermediation* 9, 2000, pp.323~362.
- Boyd, J.H., S.L. Graham, and R.S. Hewitt, "Bank Holding Company Mergers with Nonbank Financial Firms: Effects on the Risk of Failure," *Journal of Banking & Finance* 17, 1993, pp.43~63.
- Cummins, J.D. and H. Zi, "Comparison of Frontier Efficiency Methods: An Application to the U.S. Life Insurance Industry," *Journal of Productivity Analysis* 10, 1998, p.131~152.

- Estrella, A., "Mixing and Matching: Prospective Financial Sector Mergers and Market Valuation," *Journal of Banking & Finance* 25, 2001, pp.2367~2392.
- Genetay, Nadege and Philip Molyneux, *Bancassurance*, Macmillan Press Ltd., 1998.
- Pulley, L.B. and Y.M. Braunstein, "A Composite Cost Function for Multiproduct Firms with an Application to Economies of Scope in Banking,"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4, 1992, pp.221~230.
- Santomero, A.M. and E.J. Chung, "Evidence in Support of Broader Bank Powers," *Financial Markets, Institutions and Instruments* 1(1), June 1992, pp.1~69.
- Shaffer, S., "Can Megamergers Improve Bank Efficiency?" *Journal of Banking & Finance* 17, 1993, pp.423~436.
- Yener, A., M. Philip, and J. Thornton, "Big-Bank Mergers in Europe: An Analysis of the Cost Implications," *Economica* 64, 1997, pp.317~329.

〈별첨 1〉 방카슈랑스 도입방안

		주요 내용
판매상품		- 판매 용이성, 불공정 거래 소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4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2003. 8~): 저축, 연금, 신용보험 • 2단계(2005. 4~): 제3보험 중 순수보장성 상품 • 3단계(2006. 10~): 제3보험 중 환급형 상품 • 4단계(2008. 4~): 일반 개인보장성 상품 • 여타 보험(기업성보험 등)은 추후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 여부 검토
보험대리점 형태 및 비율 제한		- 대형 금융기관(자산 2조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속대리점을 불허하고 특정보험회사의 상품판매비중을 25% 이하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보험사 판매비중 계산시 당해 금융기관 또는 관련 지주회사 등이 지분 15% 이상을 소유한 보험사의 판매비중은 합산하여 33% 이하로 제한
방카슈랑스 허용 금융기관		- 개정 법률에 규정된 은행, 증권, 상호저축은행 외에 특수은행(기업, 산업은행) 및 신용카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상품의 개발·판매로 실질적으로 이미 방카슈랑스를 시행하고 있는 농·수협, 신협, 우체국 등은 제외
방카슈랑스 참여 형태		- 단순 판매제휴방식 외에 자회사방식도 동시에 허용
모집방식		- 보험판매는 금융기관 점포 내(in-bound)에서만 가능하며, 방문판매·전화·우편·E-mail 발송을 통한 판매는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신문·TV광고 및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한 모집행위는 가능
기타 사항	보험모집 전담조직 구성	- 금융기관 본점 및 지점에는 보험모집 유자격자(본점 4인 이상, 지점 1인 이상)가 대리점 업무에 상시 종사하도록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 초기 보험판매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점포당 모집에 종사하는 인원수를 2인 이내로 제한. 단, 은행 등이 설 계사 채용시 모집종사자 제한에 대한 예외 인정 • 모집에 종사하는 인원은 대출 등의 불공정 모집 소지가 있는 업무는 취급할 수 없음
	공시제도 도입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판매수수료를 공시하도록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회사 및 보험협회는 각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수수료를 비교·공시하여야 함
	보험회사의 동일업종 자회사 설립 허용	- 일부 종목에 특화된 보험자회사 설립 등을 위해 우선 금융기관과의 합작회사 설립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업종 자회사 설립기준은 추후 발표할 예정

자료: 재경부 및 금감위 보도자료(2003. 1, 2003. 6 및 2005. 4).

<별첨 2> 효율성 관련 실증연구

연구자	표 본	분석기법	이용 변수
Berger and Humphrey(1991)	은행(13,951), 1984	translog cost function, thick frontier approa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부동산담보대출, 기업대출, 할부대출 • 노동, 물리적 자본, 매수자금
Pulley and Braunstein(1992)	은행(205), 1988	composite cost fun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부동산담보대출, 기업대출, 신용 및 할부대출 • 물리적 자본가격, 노동가격, 자금에 대한 이자비용
Shaffer(1993)	은행, 1984~1989	translog cost function, thick frontier approa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기업대출, 기타 국내대출, 해외대출, 투자 • 노동가격, 물리적 자본가격, 자금에 대한 이자지급
Berger, Hancock, and Humphrey (1993)	은행(384~599), 1984~1989	profit fun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대출, 소비자대출(할부대출) • 노동(종업원 수), 매수자금
Altunbas, Molyneux, and Thornton (1997)	4개국 은행(371), 1988	hybrid translog cost fun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 유가증권 • 종업원 1인당 연평균 임금, 이자부예금의 달러당 평균이자비용, 자본의 평균가격
Berger et al.(2000)	보험회사, 1988~1992	composite cost fun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보험금, 기업보험금, 자산 • 노동가격, 사업서비스가격
정재욱 · 이지언 (2002)	은행(17), 생명보험회사 (16)	translog cost fun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자산, 보험자산 • 고정자산 대비 일반관리비와 사업비, 부채 대비 지급이자와 지급보험금
정세창 · 이정환 (2003)	보험회사, 1998~2000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료, 운용자산 • 임직원, 보험사모집인, 은행판매인, 물리적 자본 • 투입요소가격
이봉주 · 이순재 · 정세창(2004)	은행(15), 생명보험회사(21), 1997~2001	composite cost function, thick fronti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 예금, 대출금, 보험: 발생보험금, 운용자산투자액 • 노동요소가격, 자본요소가격

〈별첨 3〉 은행산업의 총자산 · 자기자본 · 영업이익 현황

(단위: 억원)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총자산	전체 은행	5,809,998	6,161,573	6,925,394	7,233,818	7,000,163	33,130,947
		415,000	440,112	494,671	516,701	500,012	473,299
	시중은행	5,352,870	5,664,064	6,385,666	6,675,952	6,417,322	30,495,874
		669,109	708,008	798,208	834,494	802,165	762,397
	지방은행	457,128	497,509	539,728	557,866	582,841	2,635,073
		76,188	82,918	89,955	92,978	97,140	87,836
자기자본	전체 은행	220,668	252,636	277,463	288,141	340,697	1,379,605
		15,762	18,045	19,819	20,581	24,336	19,709
	시중은행	205,519	236,376	254,475	261,918	311,721	1,270,009
		25,690	29,547	31,809	32,740	38,965	31,750
	지방은행	15,149	16,260	22,988	26,223	28,976	109,597
		2,525	2,710	3,831	4,371	4,829	3,653
영업이익	전체 은행	-43,391	33,685	51,563	18,592	63,884	124,333
		-3,099	2,406	3,683	1,328	4,563	1,776
	시중은행	-38,557	29,812	46,303	14,580	58,639	110,777
		-4,820	3,726	5,788	1,823	7,330	2,769
	지방은행	-4,834	3,873	5,260	4,012	5,245	13,556
		-806	646	877	669	874	452

주: 위의 숫자는 그룹별 합계이며, 밑의 숫자는 그룹별 평균값임.

〈별첨 4〉 생명보험산업의 총자산 · 자기자본 · 영업이익 현황

(단위: 억원)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총자산	전체 생보사	1,207,300	1,373,983	1,535,917	1,691,229	1,841,491	7,649,920	
		57,490	65,428	73,139	80,535	87,690	72,856	
	대형 생보사	973,121	1,115,577	1,237,313	1,341,720	1,424,382	6,092,113	
		324,374	371,859	412,438	447,240	474,794	406,141	
	중소형 생보사	149,386	150,461	162,563	174,725	191,884	829,019	
		21,341	21,494	23,223	24,961	27,412	23,686	
	외국계 생보사	64,369	86,717	110,921	142,674	183,546	588,227	
		8,046	10,840	13,865	17,834	22,943	14,706	
	은행계 생보사	20,424	21,228	25,120	32,110	41,679	140,561	
		6,808	7,076	8,373	10,703	13,893	9,371	
	자기자본	전체 생보사	13,276	70,200	86,442	138,109	134,555	442,582
			632	3,343	4,116	6,577	6,407	4,215
대형 생보사		17,072	64,719	78,257	119,797	108,369	388,214	
		5,691	21,573	26,086	39,932	36,123	25,881	
중소형 생보사		-4,581	-2,422	-1,425	3,761	6,507	1,840	
		-654	-346	-204	537	930	53	
외국계 생보사		2,543	9,232	10,670	14,059	17,055	53,559	
		318	1,154	1,334	1,757	2,132	1,339	
은행계 생보사		-1,758	-1,329	-1,060	492	2,624	-1,031	
		-586	-443	-353	164	875	-69	
영업이익		전체 생보사	-816	27,786	39,842	38,861	35,952	141,625
			-39	1,323	1,897	1,851	1,712	1,349
	대형 생보사	1,236	24,469	30,998	28,971	25,831	111,505	
		412	8,156	10,333	9,657	8,610	7,434	
	중소형 생보사	-1,054	1,836	3,289	4,002	3,861	11,935	
		-151	262	470	572	552	341	
	외국계 생보사	-268	1,427	4,619	4,636	4,635	15,050	
		-34	178	577	580	579	376	
	은행계 생보사	-730	53	936	1,251	1,625	3,135	
		-243	18	312	417	542	209	

주: 위의 숫자는 그룹별 합계이며, 밑의 숫자는 그룹별 평균값임.

〈별첨 5〉 분석 유형별 N 값의 최고치($s=1$)

	2000	2001	2002	2003	2004
전체 은행 / 전체 생보사	0.1720	0.1823	0.1815	0.1895	0.2083
시중은행 / 전체 생보사	0.1840	0.1952	0.1939	0.2021	0.2230
지방은행 / 전체 생보사	0.7254	0.7342	0.7400	0.7520	0.7596
시중은행 / 대형 생보사	0.1538	0.1645	0.1623	0.1673	0.1816
시중은행 / 중소형 생보사	0.0271	0.0259	0.0248	0.0255	0.0290
시중은행 / 외국계 생보사	0.0119	0.0151	0.0171	0.0209	0.0278
시중은행 / 은행계 생보사	0.0038	0.0037	0.0039	0.0048	0.0065
지방은행 / 대형 생보사	0.6804	0.6916	0.6963	0.7063	0.7096
지방은행 / 중소형 생보사	0.2463	0.2322	0.2315	0.2385	0.2477
지방은행 / 외국계 생보사	0.1234	0.1484	0.1705	0.2037	0.2395
지방은행 / 은행계 생보사	0.0428	0.0409	0.0445	0.0544	0.0667

〈별첨 6〉 금융검업 후 비용 · 수익 · 이익함수 추정결과($s=1$ 일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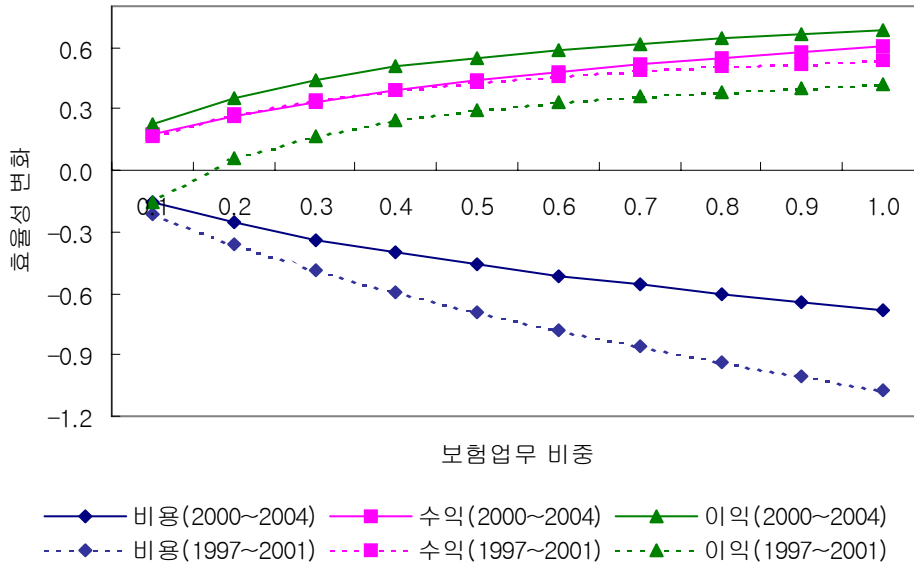
	비 용	수 익	이 익
2000	0.44** (3.68)	0.73* (2.19)	0.18 (0.61)
2001	0.44** (3.65)	0.73* (2.19)	0.19 (0.63)
2002	0.43** (3.62)	0.73* (2.19)	0.19 (0.64)
2003	0.43** (3.59)	0.72* (2.16)	0.18 (0.62)
2004	0.43** (3.59)	0.71* (2.12)	0.17 (0.57)
예 금	0.58* (2.55)	1.17 (1.74)	0.53 (0.89)
운용자산투자(b)	-1.61** (-4.49)	-2.71** (-2.63)	-0.75 (-0.82)
보험금	-2.69** (-3.51)	-8.53** (-3.96)	-4.98** (-2.60)
운용자산투자(m)	-0.45 (-1.41)	-0.76 (-0.84)	-0.22 (-0.27)
예금*예금	2.22** (4.78)	0.15 (0.11)	-2.25 (-1.87)

<별첨 6>의 계속

구 분	비 용	수 익	이 익
운용자산투자(b)*운용자산투자(b)	4.26** (6.25)	4.72* (2.39)	-0.23 (-0.13)
보험금*보험금	-5.81** (-7.48)	-25.18** (-12.18)	-21.03** (-11.56)
운용자산투자(n)*운용자산투자(n)	-0.67 (-1.24)	-1.26 (-0.83)	-0.61 (-0.45)
예금*운용자산투자(b)	-5.08** (-5.98)	-2.95 (-1.19)	2.63 (1.18)
예금*보험금	-3.36 (-1.80)	-38.91** (-7.26)	-36.12** (-7.55)
예금*운용자산투자(n)	3.15** (4.15)	13.69** (6.21)	10.45** (5.31)
운용자산(b)*보험금	11.28** (5.62)	50.65** (9.08)	37.90** (7.66)
운용자산투자(b)*운용자산투자(n)	-1.03 (-1.12)	-7.00** (-2.63)	-6.23** (-2.62)
보험금*운용자산투자(n)	12.94** (7.10)	38.15** (7.41)	24.23** (5.30)
예금*(노동 / 자본)	-0.23** (-4.37)	-0.12 (-0.91)	0.01 (0.07)
운용자산투자(b)*(노동 / 자본)	0.20** (4.49)	0.15 (1.27)	0.02 (0.20)
보험금*(노동 / 자본)	-0.99** (-9.03)	0.30 (1.28)	0.75** (3.25)
운용자산투자(n)*(노동 / 자본)	0.07** (3.22)	-0.11 (-1.37)	-0.13 (-1.68)
(노동 / 자본)	0.96** (10.69)	0.58** (7.54)	0.52** (6.54)
(노동 / 자본)^2	-0.33** (-3.11)	-0.24** (-3.57)	-0.17 (-1.84)
Adjusted R-squared	0.88	0.87	0.82
Log likelihood	3,174.11	1,867.99	2,028.60
관측치 수	1,330	1,330	1,330

주: * p-value<0.05, ** p-value<0.01, () 안의 숫자는 t-값임.

〈별첨 7〉 은행의 효율성 변화(선행 연구와의 비교)



〈별첨 8〉 비용효율성의 분산분석결과

비 중	동일집단군 A	동일집단군 B	동일집단군 C	동일집단군 D, E
0.1	시중 /중소형(-0.006) 시중 /외국계(-0.023) 시중 /은행계(-0.003) 지방 /은행계(-0.050)	시중 /외국계(-0.023) 지방 /외국계(-0.133) 지방 /은행계(-0.050)	지방 /중소형(-0.137) 지방 /외국계(-0.133) 지방 /은행계(-0.050)	동일집단D: 시중 /대형(-0.315) 동일집단E: 지방 /대형(-1.211)
0.2~1.0	시중 /중소형(-0.166) 시중 /외국계(-0.292) 시중 /은행계(-0.101) 지방 /은행계(-0.172)	지방 /중소형(-0.802) 지방 /외국계(-0.644)	시중 /대형(-2.005)	지방 /대형(-2.593)

주: 1) 동일집단의 비교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2) () 안은 해당 집단의 비용효율성의 변화 정도이며, 0보다 큰 경우 효율성이 증가한 것임.
 3) 보험업무비중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높은 비중의 비용효율성 변화값을 표시함.

〈별첨 9〉 수익효율성의 분산분석결과

비 중	동일집단군 A	동일집단군 B	동일집단군 C	동일집단군 D, E
0.1	시중 /중소형(0.010) 시중 /외국계(0.042) 시중 /은행계(0.017) 지방 /중소형(0.053) 지방 /은행계(-0.000)	시중 /외국계(0.042) 지방 /중소형(0.053) 지방 /외국계(0.173)	시중 /대형(0.325)	지방 /대형(1.461)
0.2	시중 /중소형(0.022) 시중 /외국계(0.078) 시중 /은행계(0.031) 지방 /중소형(0.099) 지방 /은행계(-0.020)	지방 /중소형(0.099) 지방 /외국계(0.304)	시중 /대형(0.597)	지방 /대형(2.000)
0.3~0.7	시중 /중소형(0.060) 시중 /외국계(0.215) 시중 /은행계(0.063) 지방 /중소형(0.233) 지방 /은행계(-0.110)	지방 /외국계(0.680)	시중 /대형(1.575)	지방 /대형(2.891)
0.8	시중 /중소형(0.064) 시중 /외국계(0.237) 시중 /은행계(0.064) 지방 /은행계(-0.126)	시중 /중소형(0.064) 시중 /외국계(0.237) 시중 /은행계(0.064) 지방 /중소형(0.253)	지방 /외국계(0.730)	동일집단D: 시중 /대형(1.721) 동일집단E: 지방 /대형(2.963)
0.9~1.0	시중 /중소형(0.073) 시중 /은행계(0.064) 지방 /은행계(-0.154)	시중 /중소형(0.073) 시중 /외국계(0.276) 시중 /은행계(0.064) 지방 /중소형(0.290)	지방 /외국계(0.815)	동일집단D: 시중 /대형(1.978) 동일집단E: 지방 /대형(3.071)

- 주: 1) 동일집단의 비교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2) () 안은 해당 집단의 수익효율성의 변화 정도이며, 0보다 큰 경우 효율성이 증가한 것임.
 3) 보험업무비중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높은 비중의 수익효율성 변화값을 표시함.

〈별첨 10〉 이익효율성의 분산분석결과

비 중	동일집단군 A	동일집단군 B	동일집단군 C	동일집단군 D
0.1	시중 /중소형(0.031) 시중 /외국계(0.125) 시중 /은행계(0.071) 지방 /중소형(-0.171) 지방 /외국계(0.290) 지방 /은행계(-0.102)	시중 /대형(0.494) 시중 /중소형(0.031) 시중 /외국계(0.125) 시중 /은행계(0.071) 지방 /외국계(0.290)	지방 /대형(2.090)	
0.2	시중 /중소형(0.083) 시중 /외국계(0.219) 시중 /은행계(0.131) 지방 /중소형(-0.255) 지방 /은행계(-0.239)	시중 /중소형(0.083) 시중 /외국계(0.219) 시중 /은행계(0.131) 지방 /외국계(0.482)	시중 /대형(0.904) 시중 /외국계(0.219) 지방 /외국계(0.482)	지방 /대형(2.869)
0.3~0.8	시중 /중소형(0.141) 시중 /외국계(0.475) 시중 /은행계(0.120) 지방 /중소형(-0.580) 지방 /은행계(-0.775)	시중 /중소형(0.141) 시중 /외국계(0.475) 시중 /은행계(0.120) 지방 /외국계(1.078)	시중 /대형(2.515) 지방 /외국계(1.078)	지방 /대형(4.104)
0.9~1.0	시중 /중소형(0.127) 시중 /외국계(0.522) 시중 /은행계(0.185) 지방 /중소형(-0.654) 지방 /은행계(-0.897)	시중 /중소형(0.127) 시중 /외국계(0.522) 시중 /은행계(0.185) 지방 /외국계(1.190)	시중 /대형(2.862) 지방 /대형(4.222)	

- 주: 1) 동일집단의 비교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2) () 안은 해당 집단의 이익효율성의 변화 정도이며, 0보다 큰 경우 효율성이 증가한 것임.
 3) 보험업무비중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높은 비중의 이익효율성 변화값을 표시함.